

# 강간

## Vergewaltigung

### 1. 어원 및 개념 정의

강간은 독일어로 Vergewaltigung이며 영어로는 rape, 혹은 violate이다.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동침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을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폭력이 있었는가라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무력한 대응 역시 동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강간에 해당한다.



관습상 강간은 재산범에 해당된다. 여성은 남편과 아버지의 소유물로서 결혼은 아버지로부터 남편에게 딸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했다. 딸은 아버지의 동산이며, 강간의 피해자는 여성이 아니라 소유자인 남성으로 이해되었다. 강간죄는 남성의 소유물을 침해한 남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정조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오늘날에도 강간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무시되고 가해자를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도 여기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간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닌 정조에 대한 침해로 보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강간 Vergewaltigung

과 성폭력 sexuelle Nötigung을 구분했으나 최근 이를 동일한 행위로 규정했다.

독일에서는 부부간에 행해지는 강간도 처벌대상으로 간주하며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sexueller Missbrauch도 구분해서 분류한다. 강간을 당한 희생자들은 대개 수 년 동안 충격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인 장애에 해당되는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남기기도 하고, 성적인 장애와 성적 혐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불면, 두통, 공포, 우울, 불안, 모욕감, 죄책감, 자신감 상실에 시달리며 정신 착란, 정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 2. 모티프 유형

문학에서 강간은 법해석의 좁은 차원에서가 아니라 희생자의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 및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폭력과 연관하여 폭넓게 다루어진다. 또한 강간은 억압된 성적 욕망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표출로 나타난다. 문학에서 나타나는 강간모티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정치적, 경제적 권력 행사로서의 강간

권력자는 강간을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여긴다. 특히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점령군의 부녀자 강간이 그 예이다. 부녀자 강간은 전쟁 모티프와 관련하여 종종 발견되는 문학적 모티프이다. 이러한 유형의 강간 피해자는 자살이나 정신착란에 이르기기도 하고 방화, 남편살해, 혹은 영아살해라는 복수를 자행하기도 한다.

헤벨의 『유디트』가 정치적 권력 행사로서의 강간의 대표적 예이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디트 이야기를 극화한 『유디트』는 정복자 홀로페르네스에게 정조를 유린당하는 유디트의 수치와 분노 그리고 복수를 그린다. 헤벨의 『유디트』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로 네스트로이는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에서 홀로페르네스의 영웅적인 면모를 그린다.

### 2) 약점을 이용한 협박으로서의 강간

희생자의 사회적 혹은 신체적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도구로 강간한다. 가해자는 성폭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한다. 이 경우 강간은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우월감과 지배욕을 과시하기 위해 강간한다. 여성은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항하지만 결국은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우프트만의 『로자 베른트』에서 하녀 로자는 주인집 남자 플람메로부터 유린당한다. 또 다시 로자의 약점을 알고 협박하는 기관수 슈트랙크만에게도 강간당한다. 남성들의 성욕의 희생자가 된 로자는 남성들에 대한 복수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인다.

### 3) 성적 욕구 및 지배욕의 표출로서의 강간

헤벨의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적욕구와 지배욕을 충족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작품이다. 클라라의 약혼자 레온하르트는 실직자이다. 클라라 앞에 그녀의 어릴 적 친구인 비서관이 나타나자 레온하르트는 불안해한다. 결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레온하르트는 계획적으로 클라라를 범해 임신시킨다.

### 4) 여성/남성에 대한 패배감 혹은 굴욕감으로 인한 강간

분노에 의한 강간으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분노와 경멸, 증오의 감정으로 인해 강간한다. 여성에 대한 패배감에 사로잡힌 남성은 강간을 통해 여성에 대한 복수심을 해소한다. 이러한 강간의 경우 범행 도중 폭행을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엘리벵의 『피아노 치는 여자』에서 피아노 여선생 에리카는 자신을 사랑하는 클레머에게 그가 남성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다.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하자, 굴욕감을 느낀 클레머는 에리카를 찾아가 편지에 적힌 대로 에리카에게 성폭력을 행사한다.

5) 욕정의 분출로서의 강간

강간은 순간적인 욕정의 분출, 대수롭지 않은 충동적 기분이나 호기심에서 자행된다. 이는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강간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 혹은 환각상태 등 의식과 무의식이 혼재하는 애매한 상태에서 일어난다. 피해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강간으로 인해 임신이 되어 뒤늦게야 강간사실을 확인하기도 한다.

클라이스트의 『O... 후작부인』에서 백작 F...는 전쟁 중 순간적인 욕정에 사로잡혀 O... 후작 부인을 범한다. 이로 인해 임신하게 된 후작부인은 아이의 생부를 찾는 광고를 낸다.

3. 서사구조

	내용
원인	전쟁
	여성혐오증
	지배욕
	충동적인 성적 욕구, 계획적인 성적 욕구
	알코올, 마약
	성적인 매력
과정	폭행, 폭력행사
	협박
	대결/ 결투
결과	신체적 손상
	정신분열, 우울증
	죽음 (자살, 살인)
	정체성 상실
	성적 혐오감
	임신
	복수

4.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마리아 막달레나 Maria Magdalene』\*

작가	프리드리히 헤벨 Christian Friedrich Hebbel (1813-1863)
장르	희곡
생성년도	1843년
등장인물	<p>클라라: 강제적으로 혼전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되나 집안문제로 약혼자인 레온하르트로부터 파혼 당하자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p> <p>레온하르트: 클라라의 약혼자로 명예욕과 지배욕에 사로잡힌 인물. 클라라를 범해 임신시킨 뒤 클라라의 집안 문제를 제기하며 파혼을 요청한다.</p> <p>비서관: 클라라를 연모하며 클라라가 레온하르트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레온하르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p> <p>마이스터 안톤(목수): 클라라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자신의 체면과 명성에 더 관심을 가진다.</p> <p>어머니: 아들이 절도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죽음에 이른다.</p> <p>아담: 법원관리. 안톤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그의 아들 칼에게 절도혐의를 뒤집어씌운다.</p>

4.1. 내용 요약



목수인 안톤의 딸 클라라는 병약한 어머니를 돌본다. 동생 칼은 용돈 때문에 어머니를 괴롭힌다. 어머니가 클라라에게 딸의 약혼자인 레온하르트의 소식을 물어보지만 클라라는 요즘 만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클라라가 레온하르트와의 혼전관계를 자책하자 레온하르트는 그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변명한다. 레온하르트는 안톤에게 클라라와 결혼하겠다고 지참금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한다. 칼이 절도혐의를 받고 가택 수사를 당하게 되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죽는다. 범법자의 집안과 결혼할 수 없다며 레온하르트는 클라라에게 파혼편지를 보낸다. 아버지는 딸이 정조를 잃었을까 걱정하지만 클라라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변한다.

\* 윤도중(역): 마리아 막달레나, 실린 곳: 독일대표희곡선집 1, 송동준 편, 열음사, 2001.

장례식이 끝난 뒤 안톤은 딸에게 다른 모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집안의 불명예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안톤과 사이가 나쁜 법원관리 아담이 칼에게 의도적으로 혐의를 씌웠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클라라 앞에 그녀의 연인이었던 비서관이 나타나 청혼한다. 클라라는 비서관을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레온하르트와 결혼해야 한다고 고백한다. 클라라가 레온하르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비서관은 레온하르트와의 결투를 결심한다. 클라라는 레온하르트를 찾아가 칼의 무죄를 밝히며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청하지만 거절당한다. 클라라는 자신에게 남은 방법은 자살뿐이라고 말하지만, 레온하르트는 그녀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자살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비서관이 레온하르트에게 대결을 신청하자 겁먹은 레온하르트는 클라라와 결혼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비서관은 그를 끌고 나간다.

아담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칼은 그를 죽이고 도주할 계획을 세운다. 클라라와 안톤이 칼의 복수를 만류한다. 레온하르트와의 결투에서 가슴에 상처를 입고 들어온 비서관이 안톤에게 클라라를 벌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칼이 클라라가 우물에 빠져 자살했다고 전하자 비서관은 안톤이 자신의 명예 때문에 클라라를 죽게 했다고 원망한다.

#### 4.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유형:** 계획적인 성적 욕구 표출 및 지배욕의 표출로서의 강간

**서사구조:** 여자는 약혼자로부터 혼전관계를 강요하여 임신하게 된다. 약혼자는 집안 문제와 지참금 문제를 제기하며 파혼을 선언한다. 여자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

원인	계획적인 성적 욕구: 결혼을 하기 위해 강제로 혼전관계를 맺음
과정	결혼/파혼: 지참금 문제가 여의치 않자 파혼을 당함
결과	자살: 혼전임신으로 집안의 명예를 실추하게 되자 자살

#### 5. 작품 목록

헤벨 Friedrich Hebbel: 『마리아 막달레나 Maria Magdalena』 (1843), 『기게스와 그의 반지 Gyges und sein Ring』 (1856)

하우프트만 Gerhart Hauptmann: 『로제 베르트 Rose Bernd』 (1903)

슈니츨러 Arthur Schnitzler: 『엘제 양 Fraulein Else』 (1924)

엘리넥 Elfriede Jelinek: 『피아노 치는 여자 Die Klavierspielerin』 (1983)

## 6. 연계 모티프

에로틱, 질투, 의심, 섹스, 욕망, 유혹, 결투, 영아살해, 자살, 정조, 결혼/파혼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질투 + 강간 + 정신착란 + 자살
스토리	여자 친구가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자 남자는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남자는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강간한다. 여자는 성적 모멸감과 남성기피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다.